

「2022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최종 심사 결과 공고

한국박물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온라인콘텐츠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국민의 비대면 문화향유 수요에 부응하고자 2022년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본 공모에서 최종 24개관을 선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모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 선정 결과: 총 24개관

(관명 가나다순)

연번	지역	구분	관명
1	전북	미	교동미술관
2	서울	박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3	경기	박	김포다도박물관
4	전남	박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5	서울	박	목인박물관 목석원
6	경기	미	블루메미술관
7	서울	미	사비나미술관
8	경기	박	세계인형박물관
9	서울	박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10	충북	미	쉐마미술관

11	제주	박	아프리카박물관
12	경기	박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13	경기	미	엄미술관
14	제주	박	예나르제주공예박물관
15	충남	박	온양민속박물관
16	경기	박	우석헌자연사박물관
17	서울	미	일민미술관
18	충북	박	철박물관
19	전남	박	청우요도자기박물관
20	서울	미	토탈미술관
21	경기	박	과주나비나라박물관
22	경기	박	풀짚공예박물관
23	경북	박	하회세계탈박물관
24	서울	박	한국색동박물관

※ 개별 선정 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심사위원회 종합심사평

본 심사위원회에서는 서류평가와 종합평가(PT발표)를 심사지표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온라인콘텐츠를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획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기관 고유의 콘텐츠를 발굴·연구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많은 기관의 열성적인 참여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비율, 지역별 비율 등 유형별 비중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본 사업에 관한 이해도, 기획의 참신함과 다양함, 홍보 등의 활용 가능성과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선정하였습니다.

강연이나 설명 위주의 지루한 정보 전달 콘텐츠가 아닌 학술적 성격과 함께 기관 고유의 특성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중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콘텐츠를 주목하였습니다.

본 심사위원회에서는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협회와 전문가의 지원으로 보다 완성도 있고 관람객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온라인콘텐츠 결과물을 기대합니다.

2022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일동